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김우성



“올 연말 완공될 슬로바키아공장에서 3천100명이 연간 30만대의 차량을 만들

데에 있는가. 우선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정 부와 정치권에 그 책임이 있다.

노사평화가 최고 경쟁력이다

들이 취업진선에서 피해를 보고 있고 있다.

과격 노조의 대명사처럼 뱀바린 현대차 노조는 지난 1987년 출범 이후 20년간 각

도 어김없이 하부(夏圖)에 열중(?)이다. 새해 벽두 사장 폭행 등으로 시끄럽게 하

이런 판국에 노조가 적자로 받지 못한 성과를 대신 생계지원비 지급을 요구하

지금 노조가 되새겨야 할 점은 ‘법과 질 서를 지키지 않아 까먹은 성장률이 매

로 매년 1%포인트 가량의 성장률을 날려 버렸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경제 ‘샌드위치론’ 경계해야

삼성전자가 평화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덕에 우리는

하지만 자동차 분야는 다르다. 과격 노 조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한·미FTA가 타결됐고, 한·EU간, 한·중간 FTA가 추진되는 등 바야흐로 FTA

〈경제부담〉 wskim@kwangju.co.kr

시설

광주시내 학원비 ‘폭리’ 해도 너무 한다

광주시내 학원들이 수강료를 적정 수 강료보다 최대 8배나 높여 받는 등 폭리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내 학 원 ‘수강료 기준금액’은 입시학원의 경

이처럼 광주시내 상당수 학원들이 기 준금액보다 턱없이 많은 수강료를 받고

‘지진공포’ 확산...대비책 허점은 없다

일본 북서부 니가타 현에서 발생한 강 한 지진으로 사상자가 속출, 지진에

한 반도가 아직 지진 안전지대라고 하지만 원전과 초고층 빌딩, 아파트, KTX 등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반도 지진 발생빈도는 연간 20회 정도였지만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적발된 학원에 대한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기준금액을 초과해 수

학부모들은 과도한 사교육비에 허 리가 절도다. 특히 방학 때는 더욱 그렇

생활 지진이 6.8인 것을 감안하면 그 심 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규모 5.0~6.0의 지진이 발생하면 벽 에 금이 가고 비석이 넘어지며 골목, 돌

과확기술부는 이번 일본의 지진으로 원전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방사성물질

우리로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달려있는

은펜칼럼

류동훈



매일 둘째주 화 오후3시 지하철 양동 시장역, 넷째주 3시에 금남로 4구역에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광주 지하 철은 시민들의 삶의 공간 가까이

아시아문화 실�크로드 ‘광주 지하철’

되기도 했다. 광주가 문화도시를 꿈꾸며 아시아문

등 주제를 가지고, 각종 전시가 이루어 지고, 이벤트가 이루어 진다면 독특한

많은 전문가들은 미래 광주문화도시 의 경쟁력은 문화생산자와 소비자가 합

다시말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전당이 도심 전역에 만

은펜칼럼은 매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기고

서윤선



광주·전남 시도민은 물론 전국민의 지역이 아직도 생생하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다. 세계박람회 유치에 도움이 된다면 모든 것을 아끼

수를 찾은 관광객들은 여수의 아름다운 변화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여수를 바꾼 힘은 뭘까. 그것은 청결, 질서, 친절, 봉사의 엑스

특히 82개에 이르는 직능, 사회단체 화합조의 실�크로드를 거듭날 수 있도록

이제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지는 광장동계림리 석패 이후 우리 모두의

꿈이 되고 있다. 정치권, 정부와 국민의 지속적인 관

오는 8월9일부터 11일까지 BIE 35개 회원국 청소년 3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또 9월12일부터 15일까지는 투표권 을 행사하는 BIE 회원국 대표 150여명

이들 위해 BIE실사때 함께 준비했던 것처럼 너무나없이 엑스포 4대 시민운

오는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여수 엑스포 2012’가 확정되고 기쁨의 함성이

▲김인숙·광주시 북구 북동

여수를 바꾼 힘

불임여성 위한 난자 공급방안 논의할 때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임 난자매매가 이뤄 지는가 하면 성관계를 통한 임신까지 제

예컨대 ‘나이 22살, 키 160cm이며 생리주 기가 정확합니다’라는 자기 소개를 비롯해

사이트에는 난자를 판매하겠다는 여성들의 신상정보외에 해외에서의 난자매매를

▲이윤미·광주시 서구 양동

국이나 동남아로 2차례 해외여행 기회 도 주어지고, 미국 비자가 있는 여성은

난자를 매매하는지 여부는 불임시 술을 하는 병원에서 사실상 알 수 있

▲김인숙·광주시 북구 북동

음식점 종업원에 던진 지나친 농담도 성폭력

식당 종업원으로 일한 지 몇 달 됐다. 술도 파는 식당이다 보니 밤 늦게까지 일

좋지 않다며 괜한 투정을 부린다. 폭 신체적 접촉이 아니더라도 식당 종업

무턱대고 반말을 하는가 하면 종업원들에 게 술을 따라 달라고 하기도 한다.

다. 술집에서 한 나쁜 버릇은 식당까지 가지 고 들어와서야 되나.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circulation, advertising, and subscription.